

한국 과학기술혁신체계(NIS), OECD 진단 받는다

OECD 진단팀, 과기부 등 28개기관 전문가 53명 인터뷰

참여정부 출범 이후, 기술혁신을 통해 혁신 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도입된 한국 정부의 과학기술혁신체계(NIS)가 OECD에 의해 진단받을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과학기술부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공동으로 지난 10월 8일부터 5일간 국내 공무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NIS 진단을 위한 인터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OECD는 NIS 진단을 통해 해당국의 국가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 동안 중국,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을 대상으로 점검이 실시된 바 있다.

한국이 OECD의 진단을 받기로 한 것은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NIS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효율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OECD 진단(진단팀 4명)은 과학기술행정체계, 공공연구 및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 R&D 국제화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한자리에 모여 질의응답·토론하는 그룹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된다.

향후, 2008년 1월 OECD 진단팀이 다시 방한하여 중간결과 발표를 위한 국내 컨퍼런스를 개최한 후, 3월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가 최종보고서안을 확정하게 되며, 최종보고서는 5월에 발간될 예정이다.

세계적 연구소와 우수연구자 공동 육성키로

세계 최고의 기초과학연구소인 '노벨상사관학교' 독일 막스플랑크재단(Max Planck Gesellschaft)이 국내에 우수연구자 육성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기로 해 국내대학의 연구개발 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부는 독일 막스플랑크재단과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APCTP) 및 포항공대(POSTECH)가 우수연구자 육성 프로그램인 'Junior Research Group'을 설치·운영하기로 국제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중국 상하이에 공동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한 막스

플랑크재단은 APCTP를 통해 한국과의 국제공동연구의 교두보를 마련키로 하였으며 이번에 첫걸음으로 포항공대의 방사광가속기 연구소, 나노기술집적센터 등 우수한 연구시설과 기반을 활용하여 우수한 연구자를 육성하기 위해 'Junior Research Group'을 신설·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포항공대는 물론 국내대학의 연구개발 수준이 도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는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Junior Research Group'은 2008년부터 시작하여 5년간에 걸쳐 두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그룹의 리더는 독일 MPG의 엄격한 심사기준과 APCTP가 정한 절차를 거쳐 엄정하게 선발하게 된다. 그룹당 매년 30만 유로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는데, 그 재원은 독일 MPG와 APCTP가 부담하기로 했다.

'Junior Research Grou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수한 연구원들을 선발하여 각 분야별로 공동연구를 진행토록 하는 우수연구자 육성 프로그램으로 젊은 석학교수·박사급 연구생·박사후 연구원(Post-doc) 등 '젊은 연구자'들이 그 대상이 되며, 포스텍은 JRG에 연구 및 방문 인프라를 지원하고, 포스텍 학생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JRG소속 연구원이 포스텍 연구원 신분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하버드대와 케임브리지대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많은 노벨상 수상자(19명)를 배출한 MPG는 1911년 '카이저-빌헬름 학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으며, 1918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양자역학의 창시자 막스 플랑크의 이름을 따 명칭을 바꾸었다. 이 재단에는 물리·화학·생물·의학 등 자연과학 분야를 비롯, 경제학과·법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80개의 산하 연구소를 가지고 있다.

한국, 원자력 안전협약 국가보고서 IAEA 제출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개적 검증 기대

지난 3년(2004~2006년)간의 원자력안전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13개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내용을 담은 국가보고서가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에 제출되어 국제사회의 공개적 검토를 받게 된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의 IAEA에서 개최된 원자력안전협약 제4차 국가보고서 검토를 위한 조직회의에 한국 대표단 6명을 파견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제출했다

고 밝혔다.

IAEA 사무국은 각 체약국(07.9월 현재 60개국)으로부터 제출된 국가보고서를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각 체약국이 현재 운영 중인 발전용 원자로 기수를 기준으로 국가 그룹을 편성하고, 각 국가 그룹 의장단을 선출하는데, 각 국가 그룹은 선출된 의장단의 지휘 아래 내년 4월에 개최될 제4차 국가보고서 검토회의 전까지 동일 국가 그룹 내 체약국들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질의·응답을 통해 상호검토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각 체약국은 지난 3년간 이행한 원자력 안전협약 의무사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검토를 받아 해당 국가의 안전성을 제고시키고 범지구적인 원자력 안전성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게 된다.

원자력 안전협약은 1986년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의 광범위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국제 공동 대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해당 국가의 자체 노력과 동시에 국제협력력을 확대하기 위해 IAEA 주도하에 체결된 국제협약으로, 한국은 1996년에 가입했다.

2011년까지 시속 300km의 대형 위그선 실용화 사업 재가동

제2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논의

선박보다 빠르고 항공기보다 저렴하여 신개념의 수송수단이나, 대규모 초기 투자비로 인해 민간의 독자적인 상용화가 어려워, 그간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으로 선정 추진중이던 '대형 위그선 실용화사업'이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주)가 투자확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9월 27일 열린 제2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안전자료에 포함, 보고되었다.

추진일정을 보면, 과학기술사모투자펀드(한화기술금융)의 사업성 검토(07. 9)와 실용화기업을 설립(07.10)한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이와 함께 위그선 건조 및 운항관련 법·제도 정비와 위그선 운용인력 양성 및 접안시설 확보 등 운항 인프라 구축도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보인다.

적재량 100톤(보잉 747 수준), 운항속도 250~300km/h 의 큰 대형 위그선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경우, 2012년 이후 연간 생산유발 효과 1조원에 3천50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는 사업이다.

지난 관계장관회의의 주요 안건은 ①국가R&D사업 연구성과 관

리·활용 활성화방안(안) ②대형 위그선 실용화사업 추진현황(안) ③생명연구지원기본법 제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④2007년도 국가R&D사업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 등 4개 안건이었다.

한국, 경제규모 대비 연구개발투자 세계 5위

2006년 총연구개발비 27조 3천457억원, GDP대비 비중은 3.23%

참여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연구개발비 증가에 힘입어 한국 총연구개발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세계 5위권인 3.23%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부는 자연과학, 공학, 의학, 농학(인문·사회분야 제외) 분야에 대한 전국의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등 1만6천304개 기관의 2006년도 연구개발비 및 연구인력 현황 등을 조사한 '2007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2006년도 총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13.2% 증가한 27조 3천457억 원이며, GDP 대비 비중은 3.23%이다. 이로써 우리 나라는 이스라엘, 스웨덴, 핀란드, 일본에 이어 경제규모 대비 연구개발투자 규모에 있어 세계 5위로 나타났다.

문의: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 02-2110-3773

개인 및 소규모 공동연구 지원 늘린다

올해보다 32.2% 증가된 3천804억원 투입

개인 연구자들의 다양한 도전적·창의적 연구를 바탕으로 기초·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2008년도 창의적 개인 및 소규모(5인 이내) 공동연구 지원사업에 올해보다 32.2% 증가한 3천80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R&D예산 조정·배분에 따라 편성된 내년도 정부R&D예산(안)에 따르면 ▲특정기초연구사업에 1천162억 원(21%증) ▲창의연구사업에 400억원(17.4%증) ▲국가 지정연구실사업에 544억 원(12.6%증) ▲국가과학자사업에 61억원(96.8%증)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과학기술혁신본부 정보전자심의관실 02-2110-3713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한다

과기부, 11월 전국순회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연구기관의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으로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실 안전교육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개최된다.

과학기술부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는 출연(연) 및 대학 등 연구기관의 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10월 23일 광주과학기술원을 시작으로 4개 권역별(광주, 대전, 부산, 서울)연구실안전교육을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7년 교육 일정표)

구분	장소	일정	과정
호남권	광주 (광주과학기술원)	10월 23일	실무과정
		10월 24일	기본과정
		10월 25 ~ 26일	강사과정
중부권	대전 (산업안전공단 대전광역시도원)	10월 30일	실무과정
		10월 31일	기본과정
		11월 1 ~ 2일	강사과정
영남권	부산 (부산대학교)	11월 12일	실무과정
		11월 13일	기본과정
		11월 14 ~ 15일	강사과정
수도권	서울 (경희대학교)	11월 27일	실무과정
		11월 28일	기본과정
		11월 29 ~ 30일	강사과정

교육과정은 강사양성과정·안전관리실무과정·안전관리기본과정 등 총 3개 과정으로 구성되고, 강사양성과정과 안전관리실무과정은 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안전기본과정은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연구실의 위험성 분석 및 안전점검 방법 안내 및 관련 정책 등의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담당자로서의 전문성 및 안전관리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연구활동종사자들의 안전의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 등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강좌 개설 및 강사를 지원 하는 맞춤형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문의 : 과학기술부 연구실안전과 02-509-7854

이제 '국립과천과학관'으로 불러주세요

4천489억원 투자, 2008년 11월 개관

내년 11월 과천에 개관될 국립과학관의 정식명칭이 '국립과천과학관'으로 최종 확정됐다.

과학기술부는 그 동안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국민공모를 실시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와 선호도 조사를 거쳐 내년 과

천에 건립될 국립과학관의 이름을 '국립과천과학관'으로 정하고, 정식명칭과 함께 사용할 별칭으로는 과학체험의 장을 의미하는 '사이언토리움(Scientorium : Science+torium)'을 사용하여 과학 기술 문화의 핵심전당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과천과학관'은 과천시 서울대공원 인근에 부지 24만3천 970㎡, 건축연면적 4만9천50㎡ 규모로 4천489억 원(지방비 1억 원 포함)의 예산을 투입, 2006년 4월 착공하여 현재 66%의 건축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과학 꿈나무들, 노벨상 꿈 키운다

'노벨사이언스 특별 체험전' 내년 3월초까지 열어



노벨상의 유래와 내용을 통해 노벨의 과학정신을 살펴보고 건강과 의료를 중심으로 노벨상 수상자의 과학적 업적 탐구를 조명함으로써 과학꿈나무들이 노벨상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노벨사이언스 특별 체험전'이 10월 5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약 5개월간 국립서울과학관에서 열린다.

1층 전시관에는 노벨과 노벨상, 생명의 신비, 창세기의 방 등 8개 테마를 전시한다.

'생명의 신비'에는 생명의 탄생을 설명하기 위해 우주자체의 생성과 생명의 진화 및 생명체의 원자와 분자라 할 수 있는 DNA와 세포를 보고 느끼는 전시로 구성된다. '창세기의 방'은 창세기의 빛과 소리를 재현하고 태초의 빛이 혼돈 속에서 나타나고 태어나는

우주의 팽창음을 들을 수 있다.

2층 전시관에는 질병을 극복하는 노벨과학, 무병장수의 꿈 등 7개 테마가 전시된다.

‘노벨과학’에는 뢰트겐의 X-선 연구실이 원형 그대로 재현되며, 100년 전 뢰트겐의 X-선 발생튜브와 같은 전시품이 설치되어 관람객이 직접 촬영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MRI 모형을 통해 공명의 원리를 체험하며, 레이저로 라식수술 기법을 체험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오전10시부터 6시까지 입장이 가능하며, 입장요금은 6천~9천원사이다.

*문의 및 관련 홈페이지: 국립서울과학관 전시운영팀 02-3668-2222, 예매처 02-741-7821~2 www.nobelstory.com

‘2007 한국컨벤션산업전’ 개최

한국관광공사, 경상남도, 창원시 공동주최로 오는 11월 15~16일 (금) 양일 개최되는 ‘2007 한국컨벤션산업전(Korea Convention Fair 2007)’이 이공학 컨벤션의 중심지이자 산업컨벤션마케팅의 장인 창원컨벤션센터(CECO www.ceco.or.kr)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학회, 협회, 기업, 정부기관, 지자체 등 컨벤션 주최기관과, 컨벤션뷰로를 비롯한 컨벤션센터, 공연장 등 컨벤션 업계에서 200개 이상의 부스전시와 2천 명 이상이 참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예정이어서, 한층 발전된 구성으로 우리 나라

CECO 에서 개최될 주요 행사들

〈2007년〉			
11/1~4	대한민국 요트대전	11/8~11	창원건축문화제
11/8~11	친환경주거인테리어전	11/13~16	국제표면처리 및 공구전
11/15~16	한국컨벤션산업전	11/21~24	국제산업플랜트기술전
12/5~12/8	경남교육박람회 등		
〈2008년〉			
1/7~9	생태재교공정 및 디자인국제심포지엄		
3/20~22	물과 지구엑스포		
4/29~5/1	국제수송기계부품산업전		
5/21~24	국제자동차정밀기기전		
6/25~28	국제로봇대전		
6/25~27	한국지능로봇 하계종합학술대회		
10/28~11/4	제10차 람사르협약당사국총회		
11/11~14	국제조선해양산업전		
11/13~14	대한조선학회 추계학술대회		
11/19~22	한국국제기계박람회		
11/20~21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추계학술대회		
12/7~16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 등		

컨벤션 산업의 현황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컨벤션센터는 지난 10월 2일에도 경남지역 이공계열 유관 기관 초청, 지역특화 이공학 컨벤션 유치·개최 설명회를 갖고 컨벤션 유치 및 개최업무의 공동 마케팅과 밀착서비스를 자세히 제안한 바 있으며, 특히 2008년에는 2천 석 규모의 컨벤션홀 증축, 특급호텔 및 쇼핑·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의 연계시설 완공과, 람사르 총회(RAMSAR COP 10),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IJSO 2008) 개최 등을 통해 ‘과학기술 전문 전시컨벤션센터’로 새롭게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㉔



CECO 전경사진

정리 | 이창규 _ 과총 미디어팀장 lck@kofst.or.kr